

# 총·칼보다 치명적인 무역전쟁의 '비밀 병기'

## 세계사를 바꾼 15년의 무역전쟁

자오퉁·류후이 지음, 박찬철 옮김

6세기 춘추시대 때다. 천하를 통일한 제나라에는 관중(管仲)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귀해지면 중(重)해지고, 흔해지면 경(輕)해진다'는 이치를 알고는 군주 환공을 돕는다. 무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무너뜨린 것.

방법은 이러했다. 적국의 특정 상품을 막치는 대로 '사재기'해 값을 폭등시킨다. 그 여파로 관련 상공업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점에, 제나라는 수입을 멈춰 버린다.

특정 상품은 값이 폭락하고, 다른 상품으로 손실을 보정할 수 없게 된다. 아주 간단한 수준의 무역전쟁에 봉괴된 국가들은 자진해서 제나라 밑으로 들어온다.

관중의 전략은 이후 역사에서 점점 진화한다. 그 다음 전략이 바로 '봉쇄'.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미국 남북전쟁은 해상 봉쇄의 좋은 사례다.

나폴레옹은 경쟁국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륙봉쇄를 단행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막았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도 미국 동남부 해안을 철저히 차단했고, 그로 인해 남



부는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이 막혔다.

세계사를 움직인 무역전쟁을 다룬 책이 발견됐다. '세계사를 바꾼 15년의 무역전쟁'은 춘추전국시대부터 팩스 아메리카까지를 역사의 향방을 가른 무역전쟁을 들여다본다.

베이징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오퉁과 경제와 조직관리 분야 전문가 류후이가 공동 저자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향후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다투고 관련이 있다.

무역전쟁은 단순히 회계상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암전한 머리싸움'이 아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생존공간을 빼앗기 위한 '조용한 전쟁'이다.

저자들은 역사의 방향과 인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친 무역전쟁으로 명나라 '호시(互市)무역'과 '쇠술무역', 대항해시대를 연 '향료무역', 2차대전을 촉발한 '관세전쟁'을 꼽는다.

'호시무역'은 국경지대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을 뜻한다. 명나라 북방 변경은 몽골족 일파인 타타르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와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명나라 재상 장거정은 호시무역과 쇠술 무역을 매개로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했다.

호시무역으로 북방 변경의 경제가 활기를 띠자 타타르족은 말이나 소 등 가축과 모피를 명나라의 생필품과 교환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쇠술무역은 명나라가 타타르족이 만들



10세기 아랍 상인들의 향료 소개로 유럽에서는 향료 열풍이 불었다. 동방에서 향료를 3000파운드에 사면 영국에서 3만6000파운드에 팔 수 있었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수 없었던 쇠술을 제한하면서, 주도권을 쥐었다.

타타르족에게 쇠술은 초원생활의 필수품이었고, 나아가 이를 녹여 병기를 만들었다. 명나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초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향료무역'은 중세 때 베네치아와 아랍 상인들이 지중해 향료무역을 독점하면서 불거졌다.

향료에 집착했던 유럽은 결과적으로 향료를 찾기 위해 항해에 나섰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발견은 그런 연장선의 결실이다.

'관세전쟁'은 1929년 미국의 증시가 폭

락하며 공황에 빠진 불황과 관계가 있다. 미국은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세계 경제는 10여년의 불황기에 접어든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의 포연과 혼란은 미국의 거대한 관세장벽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상황에 직면한다.

저자들은 무역전쟁의 근원을 설명하며 '패권안정론'을 설명한다. 즉 패권국은 힘이 강할 때 자유무역을, 쇠락기에는 보호무역을 추구한다. 이는 오늘날의 무역전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양상이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전문의가 처방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가정의학 전문의 김경철과 김해영이 전하는 영양과 인간 몸의 면역 시스템에 관한 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한 다양한 항바이러스 임상 시험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영양소와 영양제의 섭취 방법 및 주의할 점을 제시한다. 더불어 인간의 면역 시스템과 항바이러스 작동 방식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었다.  
<열린책들·1만5000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다섯명의 인사들이 현실 사회가 '무너지 정의, 사라진 공정, 물구나무선 민주주의'로 변화된 상황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대담진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총 7개의 장을 통해 탈진실, 미디어의 몰락, 팬덤 정치, 사모펀드, 586 정치엘리트,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등을 살펴본다.  
<천년의상상·1만7800원>



▲로컬이 미래다=23년간 교사로 근무한 저자는 우리지역의 삶과 교육을 함께 살릴 대안으로 지역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교육을 지목했다. 지역교육의 주체인 지역(마을)과 학교, 교사, 주민, 지자체와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이들이 '마을학교공동체'로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에듀넷·1만7000원>

# 로컬서 희망찾는 13인의 '탐구보고서'

## 슬기로운 뉴 로컬생활

윤찬영 외 8인 공저

'지방소멸'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요즘이다. 출산율이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최근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 중 하나가 '로컬'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컬 전문가 '골목길 자본론'의 모종린 교수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로컬 공동체 없는 국가 공동체는 공허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한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들이 로컬 크리



에이터, 지역 혁신가로 불리는 이들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지역에 정착한 이들은 '자기다움'의 추구를 위해 로컬과 로컬 비즈니스를 선택했다. 그들은 로컬을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로컬에서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 있다.

'슬기로운 뉴 로컬생활-서울 밖에서 답을 찾는 탐구보고서'는 서울 이외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가치로, 자신만의 일을 꾸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

은 탐구서다.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기획하고 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찬영을 비롯 도시재생 등을 전공한 문화기획자 9명이 함께 쓴 책에는 대구, 속초, 시흥, 순창 등 전국 각지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를 삶의 거점으로 일구는 13명(탐)과 그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다. 특히 나름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까지 겪었던 슬픈 시행착오와 좌절의 순간까지도 담담히 들려줘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보도 제공한다.

목포역 인근의 '괜찮아 마을'은 전국일주 여행을 운영하는 두 사람도 서울 청년 두 사람이 기획한 작은 마을이다. 2017년 목포에 정착한 두 사람은 "지치고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꿈을 발견하

고 말도 안되는 상상도 현실이 되는 작은 마을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년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기획을 전공한 대표가 'Local drink'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2016년 광주 동명동에 문을 연 수제 맥주집 '광주 무등산브루어리'는 아직도 '버티는 시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왔던 문화 기획 일과 접목하는 또 다른 출발을 꿈꾸고 있다.

책에는 버려진 포구를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되살리는 청년기업 시흥의 '월곶비드', 공간에 깃든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지키며 가업을 잇는 부부 예술가의 '속초 칠성조선소', 골목의 삶을 기록한 시대의 역사로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를 놓는 수원의 '더페이퍼&잡지사이다', 밤하늘 별을 찾아 제주로 간 낭만 가족이 운영하는 서귀포 '솔엔유 독립출판사'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다.

<스토어하우스·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태풍이 찾아온 날=평화로운 어느 섬에 태풍이 찾아오면서 사람들 비롯해서 육지 동물과 바다 동물, 크고 작은 곤충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담았다. 어린이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발과 나비, 갈매기와 고래들도 모두 무리와 함께 이동한다. 나이와 인종을 넘어선 이웃들이 모두 한 집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하며 태풍이 사라지길 함께 기다린다.  
<미디어창비·1만3000원>



▲다 같이 흘러내리지=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따뜻한 온기를 품은 반짝반짝 햇살, 내 몸을 녹이는 폭신폭신킴사탕 같은 쿠션, 그리고 몸에 꼭 맞는 그릇 등. 자신의 몸에 잘 맞아 보이는 무



언가를 발견하면 들어가서 잠이 오면 그대로 흘러내린다. 고양이의 이러한 특성들과 '쉬어 가는 것' 그리고 '같이 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녹여냈다.  
<노란상상·1만2000원>

▲괴물말고 형?!=세 살 터울의 형제가 우연히 '이야기 세계'에 휘말리면서 서로의 진심에 한 발짝 다가서는 이야기다. '책 속의 이야기 세계'라는 판타지적 장치와 '도깨비'라는 고전적인 소재를 형제관계와 조합해 풀어냈다. 형을 무시워하면서도 동경해서 뭐든지 따라 하고 싶어 하는 동생, 그런 동생이 마냥 밍진 않지만 부모의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 속상한 형의 마음을 보여 준다.  
<사계절·1만3800원>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